

# 도내 학폭 가해자 41.2% “이유 없이”

도교육청,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결과… 초4~고3 응답학생 7만2199명 중 2010명 “피해 경험 있다”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까지 응답학생 7만2,199명 중 2.8%인 2,010명이 학교 폭력 피해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교육청이 15일 2023년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전수 조사는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19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인 유래가를 활용했다. 조사대상 학생 14만4,077명 가운데 7만2,199명(50.1%)이 참여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의 피해응답률(5.0%)이 가장 높았다.

유형별로는 언어폭력(47.9%)이 47.9%로 가장 높았으며, 집단따돌림

(14.6%), 신체폭행(14.3%) 순이었다. 특히 전년대비 언어폭력, 스토킹은 소폭 감소했지만, 신체폭행, 강요, 금품갈취 등은 증가했다.

피해가 발생하는 시간은 주로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12.0%) 등이었으며, 피해 장소는 주로 교실(42.5%)이나, 복도·계단(13.8%)이었다.

가해응답률도 1.2%로 나타났다. 가해이유로는 장난으로 이유없어(41.2%), 나를 괴롭혀서(24.7%), 오해와 갈등(10.3%) 순으로 집계됐다.

목적응답률은 8.0%로, 목격 시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다(57.5%)는 응답이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41.4%)는 응답보다 높았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협 중심 및 학생 친화적 매체를 활용한 방관자를 방어자로 전환하는 맞춤형 예방교육과 역할극 실시 △학교폭력 조기 감지 및 대응 체계 강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인성·체육·예술 교육 강화를 통해 학교 문화의 근본적 변화를 꾀하기로 했다.

또한 피해학생에 대한 빈틈없는 보호를 위해 △사안발생 초기 보호 체계 강화 △피해학생 전문지원기관 확대 △충추한 피해학생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관련 외부기관 제도로 적극 활용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2024년 3월부터 신설되는 △

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 신설·운영 △학교폭력 조사관 제도 도입 등으로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피해학생 지원 체계를 일원화할 계획이다.

정성환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이번 실태 전수조사 시점이 정치·사회적 이슈 및 언론보도 등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았던 때라 전년보다 피해응답률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는 사회구성원이 될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공간이어야 하는 만큼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 ‘우리가 주인이 되는 공간’

군산부설초, 우주공간 완공  
독서·휴식 공간 등으로 조성

군산부설초등학교는 지난 14일 우주공간 완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완공식에는 굿네이버스 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교 운영위원, 학생대표, 교직원 등이 참석했다.

이에 따르면 우주공간은 ‘우리가 주인이 되는 공간’의 약자로 하나은행의 사회공헌기금 지원을 통해 굿네이버스에서 실시한 프로젝트로 학내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학생 친화적 공간을 만든 사업이다.

특히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전교생 대상 문항 선택식 지면 설문을 실시하고, 또 4회기의 학생회 임원 및 학부모 워크숍을 거쳐 디자인을 수정 보완했다. 이에 학생 친화적으로 설계해 캠핑 공간, 우주의 모습이 연상되는 공간, 포토존, 독서공간, 읽이 있는 공간, 전시 공간 등으로 조성했다.

김신철 교장은 “아이들이 생각하고, 아이들이 디자인해 만든 아이들만의 공간에서 상상하며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고, 학교의 주인이 되고, 나라의 주인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은성기자



군산부설초등학교는 지난 14일 우주공간 완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완공식에는 굿네이버스 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교 운영위원, 학생대표, 교직원 등이 참석했다.

## 동남아 지역연구 진흥·교육 혁신 기여 공로 인정

전북대 동남아연구소 연구과제, 교육부 우수성과 50선 선정

전북대학교 동남아연구소에서 수행한 ‘사람 중심의 동남아 노동·보건·복지 연구과제’가 2023년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우수성과 50선에 선정돼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전했다.

지난 15일 전북대에 따르면 동남아연구소는 동남아시아 국가 일반인들의 생계와 안전에 깊이 연관된 노동문제 및 보건 복지 개혁에 관한 정책 등을 연구하고자 국가 단위부터 지역 및

시민사회 등으로 한 계단씩 내려가는 단계적 심화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의 보편적 건강보장 정책 추진 과정을 연구한 학술서를 출판하고, 동남아 주요국과 아세안 동향에 관한 설명회를 매년 개최하는 한편, 교육의 기회가 희소한 동남아언어 캠프 개최하는 등 동남아시아 지역연구 진흥, 공유 및 교육 혁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연구과제를 주도한 전제성 소장은

“이번 수상은 우리 연구소의 집단 협업을 통해 달성한 것이며, 초대학적인 긴밀한 연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개방과 연대를 기치로 내건 우리 연구소의 초심을 잃지 않고 동남아 국가들의 동반 성장을 위해 더 나은 연구에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2018년 12월 개소한 전북대 동남아연구소는 2019년 9월부터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의 수주해 다양한 동남아 지역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장은성기자

## 도교육청, 수목 재산관리

매뉴얼 제작·배부키로

전북도교육청은 수목 재산관리 매뉴얼을 제작·배부한다고 밝혔다.

이는 실사용자 눈높이에 맞춘 워크숍 지침서로, △입목축의 개념 △수목조사 방법 △K-에듀파인 시스템 입력 요령 △입목축 재산 취득 및 처분 절차 등 학교(기관)에서 꼭 필요한 내용들을 담았다.

특히 시기별, 계절별 수목관리 방법 및 병충해 특성 및 방제 방법 등도 담겨 있어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은성 기자

## 도교육청, 하반기

기술직공무원 직무 연수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14~15일 이틀간 군산세관검문센터에서 기술직공무원 180여 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직무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박연정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의 ‘사전기획의 이해와 업무추진 요령’에 대한 강의를 비롯해 2023년 기술직공무원 해외연수 결과를 공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일본의 학교공간 조성 사례와 대만의 내진 보강 및 설계 사례 조사·연구를 위한 해외연수를 진행한 바 있다.

김영주 시설과장은 “기술직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통해 교육시설의 품질을 높이고, 미래지향적인 시설행정을 구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도내 창업기업 육성·인큐베이팅 위한 투자·경영지원

전주대, 다름과이음과 협약

전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센터장 이상우)는 지난 14일 창업기업 육성과 인큐베이팅을 위한 투자 및 경영지원을 위해 다름과이음 주식회사(대표 이승혁)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다름과이음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액셀러레이팅 및 가치 기반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투자전문기관이다.



전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전경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 지원 △성장도

육을 위한 투자프로그램 협력 △창업 활성화를 위한 교류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상우 창업보육센터장은 “입주기업의 성장을 위해 양 기관의 인적 교류가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이후에도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대학교 창업지원단과 창업보육센터는 유망 창업 아이템 및 기술력을 가진 창업 기업의 안정화와 성장을 위한 보육을 지원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 ‘제약바이오산업 현황·미래 성장 전략’

우석대-한국제약공학회 정기학술대회 공동 개최

우석대학교 LINC 3.0 사업단은 지난 15일 교양관 1층 지역협력세미나실에서 한국제약공학회(회장 한갑훈)와 정기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제약바이오산업의 현황과 미래 성장전략’을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대회에는 학계와 산업계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1부는 장관영 (주)아이큐어 전무의 ‘제약바이오산업의 현황과 미래 성장 전략’에 대한 특강과 함께 이준호 (주)

다카포 대표가 ‘전연물 기반 의약품 소재 개발’을, 한갑훈 한국제약공학회장이 ‘우석대학교 바이오헬스 ICC 지식산학 협력사업’을 발표했다.

이어 진행된 2부에서는 여승재 (주)뉴젠랩 부장이 ‘GMP 실무’ 특강을, 진종식 전북대 교수가 ‘내마의 가능성 연구’를, 안지혜 우석대학교 한약학과 교수가 ‘전연물 기반 난소암 함량제 개발’에 대한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이와 함께 동진대·대구한의대 연구



원들의 연구 진행 발표와 신라대·부경대 등에서도 포스터 발표에 참여했다.

한갑훈 학회장은 “이번 정기학술대회에 참가한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제약공학의 미래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의 연구 내용을 함께 토론하고 협의하는 자리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희귀 심장질환·AI 연구 ‘두각’

전북대 윤학영 교수, ‘젊은 과학자상’ 수상



전북대학교 윤학영 교수 (반려동물 임상수의학 전공)가 최근 열린 대한수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젊은 과학자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이 상은 40세 이하의 수의학 분야 연구자 중 가장 탁월한 연구 성과를 통해 국내·외 학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과학자를 선정해 주는 상이다.

이에 따르면 영상의학 전공인 윤학영 교수는 희귀 심장질환과 혈관질환, 북부질환, 뇌질환, 인공지능 등의 연구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젊은 연구자다.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건국대 부속 동물병원에서 선임 영상의사로 일

했다. 이후 VIP 동물의료센터 부원장을 거쳐 분당 리더스 동물의료원의 대표원장으로서 2차 병원을 설립하고, 2020년 전북대 수의대 교수로 임용됐다.

또한 2022년 한국수의영상의학 인정 전문의를 취득해 영상의학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윤 교수는 전북대 임용 후 올해까지 3년 만에 주저자로 20편 이상의 SCI/E 논문을 저술하고, 국제 Q1 SCI/E 저널에 10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했다.

윤학영 교수는 “젊은 과학자상 수상으로 울해를 마무리 할 수 있어 영광”이라며 “이 상을 더 좋은 연구 성과를 내리는 응원으로 받아들이며 우리나라 영상의학 수준이 세계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일조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은성기자

## 화상영어 홈클래스 ‘호응’

19주동안 초6~고3 학생 1143명 참여... 사교육비 경감 효과

화상영어 홈클래스가 참여 학생들의 큰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이는 도내 초·중·고등학생들의 실용 영어 능력을 신장시키고, 영어권 문화 이해도 증진 및 세계시민 감수성 함양을 목적으로 시작했다. 특히 영어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 증진뿐만 아니라, 사교육비 경감 효과도 가져왔다.

1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8월 7일부터 19주간 진행한 화상영어 홈클래스는 전북지역 초등학교 6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총 1,143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이 중 100여 명의 중학생은 도교육청 소속 원어민영어 보조교사 23명과 전북학스터 및 온라인 조 플랫폼을 통해 수업을 진행했고, 나머지 1,000여 명의 학생은 원어민격화강사의 위탁업체를 통해 말하기·듣기 수업을 했다.

화상영어 홈클래스에 참여한 전주평화중 김수현 학생은 “학교에서 배운 어휘를 활용해 원어민교사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말하기 실력도 향상되고, 하고자 하는 말을 전달하는 능력도 늘

었다”면서 “운영 시간이 적절하고, 원어민 선생님이 열정적으로 가르쳐 줘서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전주솔빛중 문규희 학생은 “원어민 선생님이 매우 친절하고, 말하기 주제가 재미있었다”며 “화상영어 홈클래스 수업 시간이 만족스러웠고, 말하기 능력이 많이 향상됐다”고 말했다.

원어민보조교사 다니엘 스콧(Danielle Scott)은 “화상영어 홈클래스는 소규모로 진행돼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가르칠 수 있었다”며 “학생들의 듣기·말하기 실력이 초반에 비해 눈에 띄는 정도로 향상된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강 창의인재교육과장은 “화상영어 홈클래스를 통해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능력이 향상되고, 자신감을 키우는 기회가 됐다”면서 “내년에는 올해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원어민과의 화상영어 수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화상영어 홈클래스.

(사진=전북도교육청 제공)

## 도교육청, 전북 인권보호관 워크숍

1년간의 활동 성과 평가·관계기관과 협력강화 방안 논의  
이유리 작가 ‘기울어진 미술관 - 그림 속에 나타난 권력’ 특강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15~16일 1박2일 일정으로 전주한옥마을 일원에서 전북지역 인권보호관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지난 1년 동안의 활동 성과를 평가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유리 작가를 초청해 ‘기울어진 미술관 - 그림 속에 나타난 권력’이라는 주제로 특강도 이뤄졌다.

김명철 전북교육인권센터장은 “인권상담과 조사는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 분야”라며 “전북도청 및 전주시청과 협력해 인권보호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